

Abstract

Big parks territorialize large open space and they adopt various type of facilities which accommodate neighborhood activities. However, open spaces are scattered around all over Seoul and there are less connections between the urban space. Moreover, almost all big parks have been changed in unpredictable way though each is in completed form with self-sufficient system. Thus, dealing with the Big parks in Seoul, accumulation of varied time layers, the relative sense of place and architecture is required. Planners and architects have designed urban parks in relation to urban development. Their approaches are in consideration of the fundamental attributes This allow us to penetrate the diachronic changes of open space in Seoul.

키워드 : 대규모공원, 오픈스페이스 변화, 생활권 환경의 질

Keywords : Big Park, Open Space Changes, Neighborhood Quality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서울의 도시골격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초기에는 공원이 도시계획의 구성요소로 고려되지 못했다. 또한 공원을 생활권의 질을 개선하는 요소로 다루는데 소홀했다. 개별공원과 오픈스페이스는 주변조직과의 연결을 전제로 체계적으로 조성되지 못하고 유휴공간을 공원으로 지정하는데 그쳤다. 최근에는 폐 산업부지, 쓰레기 매립장, 폐군사기지 등을 대상으로 기존의 오픈스페이스에 교육 및 문화시설을 추가하는 대형공원화 사업이 진행되었다. 대규모 공원들은 개별적인 완결성은 갖고 있으나, 도시 곳곳에 분포한 공원간의 연결과 주변 생활권과의 연결성은 낮다. 또한 공원계획 후 도시 오픈스페이스의 성격변화와 주변 생활권의 변화를 관찰하지 못하고, 개발의 성과로 평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 계획된 대규모 공원은 교육, 공공건강, 사회공동체 형성,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도시·사회이슈 대한 종합적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주5일제근무, 국민소득증대 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생활변화를 수용하기 위해 2005년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이 제·개정되었다. 그 결과 공원녹지의 범주가 확대되었고, 대규모 공원은 주제공원의 범주에서 구체적인 시설과 콘텐츠를 포함하게 되었다. 서울시의 공원계획 방식을 통합하여 정리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으나, 공원의 계획 이후 도시 오픈스페이스가 변화한 모습 그대로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서울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대규모공원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고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연구를 제공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대규모 도시공간을 공원화한 사례와 기존의 대규모 공원의 지속적인 변화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서울시의 오픈스페이스를 공원화하는데 공유하고 있는 생각과 방법을 해석한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

는 1970년대 한강개발이 시작되면서 공유수면매립을 통해 대규모 오픈스페이스 용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된 시기로부터 현재까지의 개별공원의 계획특성과 도시 오픈스페이스의 물리적 환경 및 장소의 변화를 다룬다. 서울시 내 기존의 오픈스페이스의 장소의 성격이 변화하면서 대규모공원으로 조성된 사례지 6곳(서울어린이대공원, 서울숲공원, 북서울꿈의숲, 석촌호수, 보라매공원, 월드컵공원)을 대상으로 살펴본다. 대상지의 각 시기별 계획특성과 시설 내용, 그리고 건축행위를 분석하여 오픈스페이스의 성격이 변화한 내용을 살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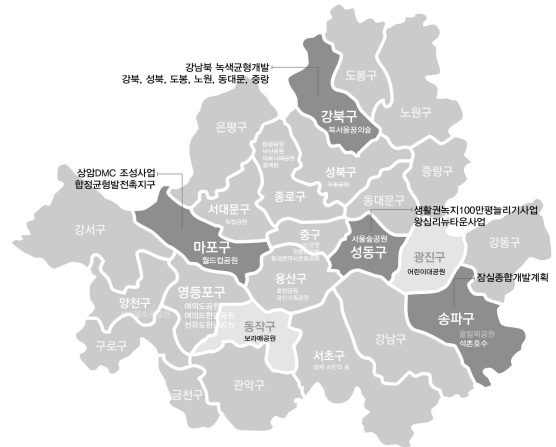


그림 2 연구대상 공원_서울시 기존

2. 서울시 대규모공원의 생성 역사

2.1 서울시 공원계획역사

전후 1960년대 초반까지는 도시 내 유휴지로 존재하던 공원용지들을 해제하여 주택 및 상업시설 개발 용지로 활용하였다. 1967년 공원법이 제정되면서 공원이 하나의 독립된 시설로 인식되기 시작하였으나, 도시환경의 질을 개선하는 계획요소로 다루지는 않았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으나, 도시계획체계와 공원계획 및 관리제도가 별도로 존재하여 통합적인 체계를 기반으로 공원이 계획 및 활용되지 못했다. 당시에는 도시골격을 형성하기 위해

* 서울대 대학원 건축학과 석사과정
**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 공학석사(MsAAD)
(교신저자 : hyo96114@naver.com)

도시계획을 우위에 두었으며, 공원용지의 활용계획은 수시로 변경되었다.

1980년대, 올림픽을 비롯한 국가행사준비를 위해 잠실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대규모단지를 조성하였다. 기존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존하지 않고, 대규모개발의 특성과 지역개발을 고려하였다. 여가 공간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도시 오픈스페이스의 면적이 부족한 가운데, 도시계획 초기단계에서부터 대규모공원용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서울 인구가 급증하였고 주변의 신도시개발이 촉진되면서 기존공원의 질적인 개선은 어려웠으며 오히려 양적으로 공원을 확충해야 하는 문제에 당면하게 되었다.

1990년대, 리우환경회의를 계기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도시에 버려진 오픈스페이스를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바탕으로 공원화하는 것이 도시의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동력으로 인식하였다. 지방자치체가 시행되면서 2000년대에는 도시 전반의 생활환경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시정과 법률에 근거하여 도시 오픈스페이스를 대규모공원으로 신설 및 재 조성 하였다.

3. 서울시 대규모공원의 계획특성과 오픈스페이스 변화

3.1 기존장소의 보존 : 어린이대공원, 보라매공원

어린이대공원은 개장 초기 어린이회관과 놀이공원, 동물원 등을 포함하는 종합테마공원으로 조성되었다. 이후 새로운 콘텐츠를 수용하고 시설노후화를 극복하기 위해 90년대 초반 환경공원으로 재 조성되었다. 이후 3단계의 장기플랜을 수립하여 2014년 리 모델링 후 재개장하였다. 어린이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로서의 역사를 보존하는 계획방식을 지향하였다. 가령 꿈마루 교양관은 어린이대공원부지에 누적된 다층적인 역사를 해석하여 과거의 흔적을 새로운 시설과 결합하여 복원하였다.

한편, 보라매공원은 오픈스페이스와 생활권의 근린 및 복지시설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조성되었다. 신대방동 일대에 위치한 공군사관학교 자리를 보수하여 1986년 개원하였다. 공군사관학교의 흔적을 보존하기 위해 비행기 8대가 전시된 에어파크를 조성하고, 공원 내에 서울시립보라매청소년수련관, 동작구민회관, 서울시립지적장애인복지관, 시민안전체험관 등 11개 기관을 수용하였다.

3.2 광역권 오픈스페이스의 균형분배 : 북서울꿈의숲, 서울숲

1990년대까지 도심과밀화해소를 위해 강남지역에 편중되었던 도시개발로 인해 강북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이 요구되었다. 대규모 유흥지를 활용하여 2개 이상의 구가 공유할 수 있는 광역차원의 생활권 공원이 대규모 공원 형태로 조성되었다. 대표적인 예로 뚝섬지구 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조성된 서울숲은 강남과 강북을 연결하는 도시 내 대규모 오픈스페이스로서 호텔이나 빌딩 등의 미관과 연계된 공원시설의 계획이 이루어졌다.

한편 장위·길음·미아 뉴타운이 조성되면서 대규모 주거단지가 들어서게 되었고 취약한 도시기반시설(도로, 공원 등)을 재정비하는 것이 개발의 핵심이 되었다. 기존의 위락시설이었던 '드림랜드'가 노후화로 인해 운영이 어

려워지면서 강북 동부지역의 중심부에 북서울꿈의숲을 조성하였다. 부분적으로 개발할 경우 도시기능이 악화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동일생활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적 개발을 수립 및 시행하였다.

3.3 도시계획 상의 용지확보 및 신도시개발 연계

: 석촌호수, 월드컵공원

잠실종합개발에서는 이전에 비해 기반시설(공원, 녹지 등 공공시설)의 용지 비율을 높게 책정하였다. 토지구획사업 이전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공공용지를 확보하고 인구밀도계획에 따라 학교, 커뮤니티센터, 공원 등의 규모를 산정하였다. 당시 조성된 호수공원(석촌호수)과 개발유보지로 선정된 한강변매립지는 이후 잠실롯데월드계획과 잠실나루 수변공원계획을 유도할 수 있는 용지를 미리 확보한 계획이다.

국가행사차원의 특수용도로 계획된 월드컵공원은 기존 대지가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쓰레기매립장이 있던 오염지역이다. 도시환경의 생태적 안정과 국가 이벤트 수행을 위해 난지도 매립장을 안정화하여 대규모 공원을 우선적으로 조성하였다. 향후 상암 새천년도시조성 및 마포구재개발과 연계할 수 있는 여지를 남김으로써 공원이 새로운 도시개발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4. 결 론

서울시 내 오픈스페이스의 변화내용을 바탕으로 도시개발에서 대규모공원 계획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어린이대공원과 보라매공원의 경우 대규모 용지에 누적된 다층적인 장소의 성격을 기존 시설의 흔적을 보존함으로써 유지하였다. 동시에 서울시는 사회요구를 수용하는 문화, 여가, 복지시설을 기존 공원조직에 삽입하였다. 한편, 대규모 오픈스페이스가 서울시 전역에 균등하게 분배되지 못한 상황에서 북서울꿈의숲과 서울숲은 광역권을 대상으로 하는 공원으로 조성되었다. 오랫동안 방치되어있던 오픈스페이스의 공원화로 주변개발이 촉진되었다. 또한 새로운 도시개발과 맞물려 계획된 석촌호수와 월드컵공원의 경우 도시개발 상의 공공용지의 확보가 사전에 이루어져 질적으로 개선된 단지조성을 가능하게 하였다.

결과적으로 도시화 초기부터 공원의 계획방식이 체계화되지는 못했지만 도시가 성장함에 따라 오픈스페이스 용지 확보를 위한 제도와 계획수법이 마련되었다. 또한, 개별 시설의 보존과 교체과정에서 시민여가와 건강한 생활환경을 지원하는 공간을 마련하고, 교육 및 문화 콘텐츠를 수렴하는 시설을 계획하였다. 이러한 대규모공원의 계획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생활권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도시설계의 접근방법과 기존 장소의 가치를 살펴볼 수 있다.

참고문헌

1. 김광중, 서울 20세기 공간변천사, 2001
2. 김한경 (2006.04) 개정 도시공원법의 주요내용, 『도시문제』
3. 서울특별시 환경국, 서울의 환경 : 환경백서, 2006
4. 조정비평 봄, 공원을 읽다, 2010
5. 김진희, 서울 1960~70년대 도시계획에서 「잠실지구종합개발 기본계획」의 의미, 2011